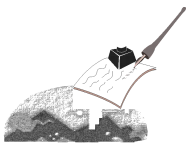
능동칼럼

잊혀져가는 고유 명절



權 海 兆
편집위원

6월 16일은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端午이다. 단오는 지난날 우리나라에서 설、한식寒食、추석과 함께 4대 명절에 들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 말고도 우리나라 사람 대개가 단오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간다. 강릉 지방의 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려 한다니까 어쩌다 기억해보는 정도이다. 4대 명절 중 설과 추석은 살아서 크게 기려진다. 설은 일제 시대 이후 몇 번이고 없어질 뻔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나곤 했는데 이제는 강제로 없애기 어렵게 되었다. 한식은 또 그나마 선산先山에 사초莎草 등을 하는 민속이 남아 있어서 명맥이 아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오의 단端은 시작, 시초의 뜻이고 오午는 음력 5월을 뜻한다. 단오를 달리 단오端五라고도 하는데 원래 단오端五는 음력 매월 초닷새를 이르는 말이어서 단오端午가 된 것이다. 달리 중오重五라고도 함은 오五가 겹친다는 뜻이다. 그래서 중오절重五節이라고도 하고 또 양수陽數가 왕성하다 하여 단양端陽이라고도 한다. 음력 9월 9일을 중양重陽, 즉 양수가 겹쳤다 하여 중양절이라 하지만 구九는 양수의 지극한 것, 즉 항구亢九가 되어 이윽고 지는 해와 같기 때문에, 양수의 한가운데에 있는 오五가 가장 왕성한 것으로 친다. 그래서 하늘의 한가운데 있다는 뜻으로 단오를 천중절天中節이라고도 한다.

단오에 하는 행사를 단오비음 또는 단오장端午粧이라 했다. 상고 마한馬韓 시대부터 봄에 파종을 하고 나서 풍작을 기원하는 행사로 5월에 군중이 모여 신에게 제사하고 가무를 즐기는 여흥을 벌인 것이 유래이고 신라 시대부터 이것이 명절로 정착되었다. 여인네는 머리를 감아 질병、잡귀 따위를 깨끗이 씻어내고 푸른 새 옷을 갈아입고 남자들은 씨름판을 벌여 기운을 자랑하며 어린이와 노인네들까지 즐겁게 하였다. 그리고 수리치를 넣어 둥글게 절편을 만들어 나누어 먹으며 이를 단오떡, 수리취떡 또는 차륜병車輪餠이라 하고 단오를 수릿날이라 하기도 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네뛰기나 씨름 외에 탈춤、사자춤、가면극 등 민속놀이도 즐겼다. 입춘立春에 춘련春聯을 써서 대문짝이나 문설주에 붙이듯이 단오에는 또 단오첩端午帖이라는 축시祝詩를 지어 써 붙이기도 하고 나라에서는 임금이 선비들에게 기념 부채를 하사하니 이를 단오선端午扇이라 불렀다. 지금은 다 흔적 없이 사라져간 유풍遺風이다.

세상이 바뀌면서 우리나라에 3、1절、제헌절、광복절、성탄일、불탄일도 생기고 이북에서는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로 만들어 그 최대명절을 삼고 있다. 그리고 이 땅의 젊은 세대는 발렌타인데이 같은 서양의 명절은 알아도 우리의 칠석七夕 같은 날은 모르고 있다. 지난날은 4대 명절 외에 정월대보름、삼월 삼짇날、한식일、칠석、백중、중양절、동지 등도 모두 명절이었다. 정월대보름은 설날부터 이어지는 새해맞이의 축제가 끝나는 날로서 그 전야인 열 나흗날 밤의 쥐불놀이 등의 행사가 대단했다. 삼짇날은 3월 3일로서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날이고 꽃이 피기 시작하므로 진달래 꽃을 찹쌀가루와 반죽하여 참기름에 지지는 화전花煎을 야외에 나가 부쳐 먹고 노는 화전놀이를 벌이며 아울러 녹두가루 반죽을 익혀 꿀과 잣을 곁들이는 화면畵面도 즐겼다.

칠석은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하늘에서 만난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어 중국과 일본에서도 유행했는데 농경 시대에 봄 여름의 힘든 일을 끝내고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뜻이 있었다. 호박부침이나 햇밀로 만든 밀떡과 참외 따위 과일을 놓고 고사를 지내기도 하는데 불가에서는 가족의 건강과 장수를 비는 칠석불공을 드리기도 했다.

백중百中은 백중百衆이라고도 하고 음력 7월의 보름이라 중원中元이라고도 한다. 정월대보름이 상원上元이고 4월 보름이 하원下元이며 백중이 중원이다. 원래 불가의 명일로서 여름의 하안거夏安居를 마친 중이 대중 앞에서 자기 허물을 말하여 참회를 구하며 절에서 재를 올리던 데서 비롯하였다. 이 때 민가에서는 실과와 음식을 마련해 나누어 먹고 가무도 즐기는 백중놀이를 벌이게 된 것이다. 또 이 날 절이나 부처를 모신 집에서는 죽은 이의 명복을 비는 불공을 드리고 이를 백중불공 또는 백중맞이라 했으며 무당은 백중맞이 굿을 하였다. 그러다가 이 날은 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이나 객사자客死者 따위를 위로하는 제삿날이 되어 망혼일亡魂日로 불리기도 하고 머슴에게는 하나의 공휴일이 되어 추렴으로 개를 때려잡아 막걸리를 먹으며 노는 일꾼들의 명절이 되었다. 나라에서는 백중력百中曆이라는 것을 만들어 다가올 백년 동안의 일월성신一月星辰과 절후節候 등을 헤아려 기록한 것을 만들어 베풀었는데 이를 10년 주기로 수보修補했으며 조선 정조正祖 때부터 고종高宗 중기까지 지속하였다. 백중은 또 백종百種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온갖 종류가 다 포괄되었다는 뜻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농신제農神祭와 더불어 집단놀이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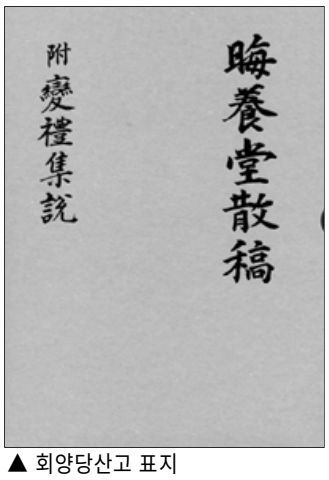
중양重陽은 중구重九라고도 하며 구월구일九月九日을 그냥 '구일'로 단축해 불렀다. 양수陽數의 극極인 구九가 겹치는 날이어서 고대 중국에서부터 명절로 삼았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부터 명절로 삼아 중양절重陽節이라 했다. 고려 때는 국가적인 행사를 베풀고, 조선에서는 나라에서 기로연耆老宴을 베풀며 절일제節日製의 특수 과거를 실시했는데 이는 성균관에서 유생에게 해마다 구일 때 베푸는지라 구일제九日製라 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 선비들은 공부한 것을 드러내는 시를 짓고 즐겨 놀았으며 일반 백성은 국화전菊花煎에, 유자에 석류、잣、꿀을 섞어 만든 화채花菜 등을 먹고, 특히 조상에게는 집안의 사당에서나 묘소에 올라가서나 차례를 지냈다. 그래서 구일차례라 하면 지난날 큰 명절 행사였다. 중양절에는 대개 유한계급층有閑階級層이 교외로 나가 단풍과 국화와 더불어 즐긴다는 뜻의 풍국楓菊놀이를 했거니와 시인詩人、묵객墨客은 시를 지어 읊고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즐긴다 해서 중양풍국유重陽楓菊遊라 하기도 하였다.

동지冬至는 겨울이 극에 이른다는 뜻이다. 연중에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1년 24계절 중 스물두번째 절후이며 대설大雪의 다음으로서 음력 11월에 듦으로 이 달을 동짓달이라고도 한다. 민속에서 이 날에 잡귀를 쫓는 구나驅儺의 뜻으로 팥죽을 쑤어 먹는데 이를 두죽豆粥 또는 동지팥죽이라 한다. 동짓죽、동지시식冬至時食이라고도 하는데 찹쌀새알심을 넣어 끓여 조상에게 동지차례를 지낼 때에는 이 팥죽을 올리지만 잡귀를 쫓는 뜻으로 쓸 때에는 대문밖에 뿌리기도 하였다.

동지는 가장 짧은 반면 낮이 더 이상 짧아질 수가 없어 길어지기가 시작되는 날이 되어 양陽의 기운이 싹트는 날이자 사실상 새해가 시작되는 절후로 보았다. 그리하여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소생하는 날로 보고 경사스러워하였으며 민속에서 삼신三神과 성주城造께 빌어 모든 질병을 쫓는 의식으로 솔잎에 팥죽을 묻혀 뿌리기도 하였다. 나라에서는 관상감觀象監에서 달력을 만들어 모든 벼슬아치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이 때에 중국에도 동지를 하례하는 사절을 보내 이를 동지사冬至使라 하였다.

흔히 이러한 우리의 전래 명절이 농경문화에 뿌리와 내력을 둔 것이어서 오늘날의 국제화된 산업사회에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겨레 고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외래 풍조만을 맹종함에서 비롯하는 얼빠짐의 소치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은 만고불변의 가치이거니와 근자에는 이를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성어로 옮겨 담아 전파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명절 고유의 멋과 슬기로움에 자욱한 그리움을 품어 보았다.

회양당 權尙精공 회양당산고晦養堂散稿 변례집설變禮集說과 함께 국역 발간



▲ 회양당산고 표지

회양당晦養堂 권상정權尙精공의 문집 회양당산고가 공의 저술 변례집설과 함께 완전 국역되어 발간되었다. 공의 저술은 변례집설 외에 주서집략朱書輯略도 있는 것으로 전하는데 이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목은 '회양당산고 에 '부附 변례집설'이라 하고 있다.

저자 권상정공은 부정공파副正公派 시조후 25세손으로 단종조端宗朝에 피화하여 영해에 입향한 오봉공五峰公 휘 책策의 7대손이다. 그 증조부대에 와서야 금고禁錮가 풀려 출사할 수 있게 되어서는 증조부 휘 응하應夏가 수직壽職 통정대부通政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받고 조부 휘 의신宜愼은 조봉대부朝奉大夫 군자감정軍資監正이 되었으며 부친 또한 수직 호군護軍을 받았다. 공은 자가 일지一之이고 회야당은 그 호이며 인조 22년, 1644년에 나서 경북 영해寧海 세거지에서 생거하며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문을 성취하였고, 수직으로 호군이 되어 영조 1년, 1725년에 82세로 졸하였다. 그리고 사후 150수년인 고종 11년, 1874년에 승정원 좌승지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경북 영덕군 창수면 대현大峴 오시방五是坊에 있는데 밀암密庵 이재李栽가 그 행장行狀을 짓고 비문은 해좌海左 정범조丁範祖가 지었다.

문집 내용은 1권이 시문으로서, 시가 7언고시七言古詩 1수, 5언절구絶句 3수, 7언절구 88수, 5언4운五言四韻 4수, 7언4운七言四韻 19수이고, 서書가 7편, 제문祭文이 13편, 묘갈명墓碣銘이 3편, 서序가 2편, 기記가 2편, 발跋이 10편이다. 2권은 잡저雜著 2편에 부록으로 남에게서 받은 행장、묘갈명과 제문이 7편, 만사輓詞가 29수, 거기에 변례집설이 더하여 1권과 같은 분량을 이루고 있다.

국역 문집의 서문은 순천順天 김철희金喆熙가 쓰고 해제解題는 풍산豊山 유용우柳龍佑가 썼다. 그리고 발문은 서울대 명예교수 금장태琴章泰가 쓰고 있고 공의 10대종손 권성달權聖達이 사손嗣孫으로서 후지後識를 더하고 있다. 발행인이 또한 사손 권성달로 되어 있는데 연락처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031) 846-5799、010-3942-4194다.

정통육효비전正統六爻秘傳
야학노인점복전서
野鶴老人占卜全書
기초편、응용편 전2권
이아평李我平 감정鑑定 / 야학노인野鶴老人 저著 / 이문휘李文煇 증산增刪
권오달權五達 태로太爐 역주譯註
010-5280-7452e-mail : kod0852@naver.com
도서출판 小康 발행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289-6
전화 051)247-9106 팩스 051-248-2176
값 기초편 10,000· 응용편 15,000원